



한전 남원지사, 남원시 수해복구 유공표창 수상

한전 남원지사(지사장 박범수)는 지난 20일 남원시로부터 수해복구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해복구 유공표창을 수상했다.

남원시에는 지난 8월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인해 도로·교량 등 기반시설이 유실되고 주택·농경지·축사 등이 침수돼 1000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이에 한전 남원지사는 수해발생 즉시 발빠른 긴급 전력복구 작업을 통해 이재민들에게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했고, 이후 수해현장 봉사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토사 제거 및 시설물 철거 등 현장 복구에 힘을 보탤다. 또 두차례에 걸쳐 침수지역에 생수·휴지·라면 등 300만원 상당의 생필품을 전달하며 지역사회에 일익을 보탤다. 남원시는 한전 남원지사의 이러한 공로를 인정해 이날 수해복구 유공표창을 했다. /남원=김기우 기자



전주교대, 침신에 인문학 콘서트 성황리 개최

전주교육대학교 침신에 인문학 콘서트가 지난 20일 교대 교육센터 마음연구실에서 성황리 열렸다. 이날 행사는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을 준수해 진행됐으며, 도내 거주하는 학부모, 예비교사, 지역민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정재숙 문화재청장이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가는 우리 문화유산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또 최근 문화재청이 성공리에 마무리한 '돈의문(敦義門·서대문) 디지털 복원 프로젝트'도 참석자의 시선을 끌었다. 문화재청은 1915년 일제가 강제로 철거한 돈의문을 104년 만에 디지털 기술로 복원했다. /정은성 기자

‘온세상 나눔 캠페인’

신협, 취약계층 따뜻한 겨울나기 위한 사회공헌활동

신협사회공헌재단(이사장 김윤식, 이하 신협)은 한과 취약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14일부터 11월 13일까지 한달간 ‘신협 온세상 나눔캠페인’을 진행한다.

캠페인 기간 동안 전국 628개 신협은 약 7,000여 취약계층 가구 및 사회복지시설 등에 이불, 전기요, 연탄 등 각종 난방용품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164개 신협에서는 생활용품 및 식료품 등을 담은 5,500개의 ‘어부바 박스’를 각 지역내 도움이 필요한 소외계층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앞서 신협은 지난 20일 대전 유성구 소재 신협중앙연수원에서 재단 임직원이 ‘어부바 박스’ 50개를 제작해 대전광역시 노인복지관에 전달해 의미를 더했다.

김윤식 이사장은 “온세상 나눔 캠페인은 신협 임직원이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직접 발굴하여 따뜻함을 나누는 신협의 대표적인 사회공헌활동이다”며 “신협은 앞으로도 한과 취약계층과 같이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지원하는 다양한 지역사회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다”고 전했다.



신협의 ‘온세상 나눔 캠페인’은 지난 2015년 신협사회공헌재단 창립총회 1주년을 기념해 전국 195개 신협이 연탄 55만 장을 나누면서 시작했다. 이후 조합원 및 지역사회에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신협 임직원이 직접 발굴하여 필요한 난방용품을 전달하는 신협의 대표 연말 나눔 행사로 발전해 왔다. 신협은 지난해까지 취약계층 30,439가정에 연탄 112만 장 및 난방용품 40,593개를 전달했다. /김윤상 기자

김란 전주시여성단체협의회회장, 스테이 스트롱 캠페인

김란 전주시여성단체협의회회장은 21일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조기 종식을 기원하는 ‘스테이 스트롱(Stay Strong)’ 캠페인에 동참했다.

스테이 스트롱은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현 상황을 전 세계적으로 힘을 모아 이겨내자는 취지로 진행된다. 캠페인은 응원 문구를 담은 로고를 만들어 SNS에 올린 뒤 캠페인을 이어갈 친구 3명을 지목하는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다.

김 회장은 김경희 전북여성단체협의회회장의 지목으로 캠페인에 참여한 뒤 문순자 김제시여성단체협의회회장, 신영자 완주군여성단체협의회회장, 최영순 한국자유총연맹회장을 다음 캠페인 대상자로 지명했다.

김 회장은 “4000여 명의 전주시 여성단체 회원을 대표해 스테이 스트롱 캠페인에 나섰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회원 간 사회적 거리두기는 물론 개인위생을 철저히 한 가운데 방역 봉사활동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시여성단체협의회는 전주시주부환경감시단, 전



주시새마을부녀회 등 9개 단체 4000명의 회원으로 구성돼 있다. 협의회는 여성단체 및 일반여성을 대상으로 여성권을 증진하고 양성평등 분위기를 확대할 수 있는 인식개선 활동과 사회봉사활동을 실시하는 등 전주시 여성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김윤상 기자

당북초 당북내래 국악관현악단, 전국대회 석권

당북초등학교 당북내래 국악관현악단은 최근 열린 전국단위 국악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했다. 우선 제30회 군산 전국학생 전통예술경연대회에서 대상을, 이어 대구에서 열린 제6회 전국청소년 국악관현악제에서는 우수상을, 광주에서 열린 제13회 가.무.악.고.법.연.회 대제전에서는 단체부 우수상을 차지했다고 전했다.

당북내래 국악관현악단은 코로나19에 대비해 파르텔 동영상 강의 등 예술교육을 지속해 온 결과 1학기에는 정음전국청소년 국악경연대회에서 우수상을, 곡성통일전국종합예술대전에서 장려상을 수상한 바 있다. /정은성 기자



전북개원내과의사회 ‘엄마의 밥상’ 성금 기탁

전북지역 의사들이 시행 6주년을 맞은 ‘밥 굶는 아이 없는 엄마의 밥상’ 사업에 도움을 손길을 내밀었다.

전북개원내과의사회(회장 유운용)는 21일 아침밥을 굶는 아이들에게 매일 아침 따뜻한 도시락을 전달하는 ‘엄마의 밥상’에 써달라며 전주시에 성금 500만원을 기탁했다. 전북개원내과의사회는 전북지역 개원 중인 내과의사로 구성되어 있는 친목 학술 모임이다.

이 모임은 지난 2017년과 2018년도에 각각 200만원의 후원금을 전달해 현재까지 총 900만원을 전주시에 기부하게 됐다. 전달된 성금은 200세대, 303명의 소외계층 아동·청소년에게 밥과 국, 3찬이 포함된 도시락을 배달하는 ‘엄마의 밥상’ 사업에 활용된다.

유운용 회장은 “소외계층 아동에 따뜻한 도시락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사업에 작지만 보탬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회원들의 뜻을 모았다”면서 “지역의 아동·청소년들이 꿈과 희망을 갖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윤상 기자



한국자유총연맹 진안군지회, 합동위령제 거행

한국자유총연맹 진안군지회(지회장 배병선)는 지난 20일 제40회 자유수호 희생자 합동위령제 를 목화예식장에서 거행했다.

이날 광복이후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희생된 호국 영령을 추모하고 유가족들을 위로하고자 치러진 위령제에는 코로나19로 온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 시국에 매년 행하던 위령제를 멈출 수 없어 방역 준수 지침 사항을 지키면서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개최됐다.

개식선언을 시작으로 기도, 독경 등 종교의식에 이어 추념사 및 추도사, 조시 낭독, 헌화 및 분향 순으로 진행됐다. 배병선 회장은 “호국영령들이 조국에 바친 피와 땀은 전쟁의 폐허를 딛고 경제발전과 민주주의를 이룩하는 원동력이 됐다”며 “항상 그 고마움을 가슴깊이 새겨 유가족에 대한 예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건협 전북지부 ‘엔택트 리사이클’ 헌옷 기증

한국건강관리협회 전북지부는 21일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협회 직원들의 자발적 참여에 헌옷과 정장 등 재활용이 가능한 의류를 취합해 기증하는 ‘엔택트 리사이클 헌옷 기증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 캠페인은 재활용이 가능한 헌옷과 정장을 기증하는 행사로, 기증된 의류는 ‘아름다운가게’와 ‘열린웃음’에서 재판매되어 발생한 수익금을 통해 국내의 소외된 이웃을 돕는데 사용된다.

한편 전북지부는 매년 어려운 지역주민 이웃들에게 나눔 문화를 실시하고 있으며 의료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사회공헌건강검진을 진행하고 있다. /김윤상 기자

전북보조기기센터, 장애인에 보조기기 무상 전달

전북보조기기센터는 최근 ‘보조기기 다시쓰기’ 대상자를 선정, 보조기기를 무상으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보조기기 다시쓰기’ 사업은 기증받은 보조기기를 점검, 세척해 보조기기가 필요한 전북 거주 장애인 및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신청을 통해 무상으로 제공한다.

센터는 이번 사업을 통해 보조기기가 필요하지만, 무상 지급 혜택을 받지 어려운 8명의 장애인을 선정해 그들에게 전용침대, 목욕의자, 이동변기, 리프트체어, 욕창방지방석, 고령자용 보행차 등 300만원 상당의 보조기기를 지원했다.

한편, 센터는 전라북도에서 거주하는 장애인에게 보조기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학의 IT 및 기계 분야 인프라를 활용해 보조기기 연구·개발을 수행해 오고 있다. /정은성 기자

전주매일

www.jmaeil.com
등록번호 전북 가00016

2009년 11월 23일 등록(일간)
(우)660-912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4층 (서노송동)

발행·편집인 조봉성 부회장 김승곤 부사장 김양욱

• 대표전화 288-9700 • 업무국 FAX 288-9703 • 편집국 FAX 288-9704

전주지사 010-9645-4113	중앙지사 010-9088-6874	남원지사 632-3996	고창지사 563-6999
삼천지사 010-2333-4791	인후지사 246-6866	김제지사 545-1227	임실지사 010-9642-2725
서신지사 272-9417	송천지사 255-2404	완주지사 246-6865	진안지사 433-3004
호지지사 010-8645-9335	팔복지사 253-6844	남원지사 632-0995	정읍지사 536-3767
	군산지사 010-6789-0038	순창지사 663-0444	장수지사 010-3882-6157
	익산지사 668-9323	부안지사 010-2425-4182	무주지사 010-2300-4253

* 구독료 : 월 10,000원, 1부 500원 인쇄인 이상현 **본지는 신문윤리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JJC 지방자치 TV

지역 문화 콘텐츠

JJC전북

YouTube, KakaoTV, NAVER TV, Daum, NAVER jjctv전북

지방자치가 발전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합니다!

TV방송채널 kt ch.224, Btv ch.285, U tv ch.253

JJC 본사: www.jjctv.co.kr tel: 02-2057-0011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109 롯데캐슬프레지던트23F
JJC 전북총국: jjctvjeonbuk.com tel: 063-246-0885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송주빌딩5F